

오피니언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조재현



김동호(부산영화제평예집행위원장), 이순재, 안성기, 임권택 감독, 이준의 감독, 박정자, 손숙, 최불암, 김덕수(사물놀이), 송승환, 성악가 김동규, 윤도현, 이한우, 김지수, 박지연, 김제동, 이인해, 바비킴, 강산에, 오지혜, 유지태, 오광록, 하지원 등 수많은 문화예술인사들이 내가 경기공연영상위원회와 DMZ국제다큐멘타리영화제, 그리고 경기도문화의전당 일을 할 때 여러 가지 부분에서 적극 참여해 주고 지지해주었다.

이를 두고 문화예술계의 훌륭한 분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건 나의 인맥이라며 나를 추켜올리고 청찬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사실 그렇지 않은 경우도 하다하하. 물론 이 가운데 친분이 두터운 분도 있으나 일을 하면서 처음 만난 분도 계시며 그런 분들에게 행사의 취지와 진정성을 보여주고 이해시키기 위해 나역시도 많은 팔을 펼어야했다. 그 중에 문화예술 연예계 선우배 중 나를 지속적으로 감동시키는 한 후배가 있어 소개할까 한다.

작년 제2회 DMZ국제다큐멘타리영화제를 준비하면서 경기도 광주상공회 조찬

모임 후 직원들과 영화제 트레이일러(영화제를 알리는 홍보영상) 연출을 논의하다가 유지태라는 이름이 나왔다. 내가 아는 유지태는 항상 예의가 바르지만 자기 주관이 뚜렷하고 일처리 또한 깊끔한 친구

아름다운 청년 유지태

여서 쉽게 수락하지 않을 텐데 하는 마음으로 조심스레 문장을 보냈다. 잠시 후 바로 전화가 왔다. 영화제에 대해선 이미 사전 지식이 있어 설명은 필요 없었다. 결론은 트레이일러 감독 제안에 대해 오히려 감사하다는 얘기였다.

사실 영화제 트레이일러는 주로 감독들이 연출해왔고 적은 제작비기기에 스텝들마저도 의미를 갖고 봉사하다시피 제작에 참여하는 것이 관례인데 적잖은 시간과 많은 에너지를 쏟아야 하는 작업을 험해 받아드린 것이다. 그것도 감사하다는 말과 함께. 그리고 작년 8월 광주 DMZ 부근에서 햇볕을 피할 수도 없는 폭염 속에 30명의 스텝과 연출에 열중하는 유지태를

보며 또 한번 감동할 수밖에 없었다.

올해 들어 제3회 영화제를 준비하며 이를 장기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집행부 조직을 보강하는데 의견이 모아졌고 유지태와 정상진이라는 두 친구를 부집행 위원장으로 위촉했다. 그런데 현재 조직 규정에서는 두 사람에게 어떤 대우도 해줄 수가 없다. 그러나 말이 부집행위원장이지 사실은 더 많은 일을 해야만 하는 자원봉사자이다. 그들은 오히려 본인 돈을 쓰면서 일을 한다. 매주 월요일이면 부천사무실에 와서 영화제 주간회의를 참여하

지 눈을 지그시 감고 얘기를 듣다가 입을 연다.

“저는 DMZ국제다큐멘타리영화제는 정말 훌륭한 영화제라고 생각합니다. 오랫동안 지속해나가면서 세계적인 영화제가 될 거라 믿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너무 과분한 역할을 맡았다는 겸손까지.(사실 그 부분에선 선배들에게 훈훈했다.)

지금 DMZ국제다큐멘타리영화제는 유지태라는 아름다운 청년으로 인해 더욱 끌고 있다. 그러나 사실 그 뜨거움의 원천은 나도 유지태도 아니란 걸 우리는 안다. 우리를 이렇게 열정으로 일하게 만든 건, 우리가 원하는 현실은 지금의 현실과는 차이가 있기 때문일 것이다.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 그 안의 DMZ가 우리를 끊어놓고 만든다. DMZ국제다큐멘타리영화제의 정신은 평화, 생명, 소통이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무엇보다 이념과 정치를 뛰어넘는 영화제를 추구한다.

그러기 위해 대회와 토론회를 통해 상대를 이해하고 소통하는 건강하고 젊은 영화제로 성장해 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나는 다만 이 건강한 풍물이 비단 영화제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곳곳에 지금 절실히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도 생각해 본다.

〈경기도문화의전당 이사장·연극배우〉

※ 본문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특별기고

과학벨트 입지선정, 왜 불공정한가



김진의

이명박 정부는 지난 5월 16일 우리나라를 6개월간 분열과 혼란 속에 들끓게 했던 ‘국제과학비즈니스밸트’ 입지를 최종 발표했다. 온 나라의 이목이 집중되고 수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유치에 사활을 걸다시피 한 대규모 국책사업의 결론치고는 안타까운 결과라고 볼 수밖에 없다. 우리는 대통령이 국가백년대계 차원에서 검토할 것이라는 당연한 전제 아래 유치 전략을 세웠다. 그런데 결국 대전의 대덕특구가 거점지구로 결정됐다. 이것이 어릴 때라면 아주 충청권으로 가기로 했던 대통령 공약을 왜 과기한 것인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왜 전국을 대상으로 사업을 원점 재검토한다고 해 온 나라를 분열과 반복의 아수라장으로 만들었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모를 일이다.

게다가 이번 과학밸트의 심사 자체는 심각한 오류와 치유할 수 없는 하자를 가지고 있다. 기초과학자의 한 사람으로서, 이 나라 기초과학의 발전을 통한 선진과학강국을 염원하는 한 사람으로서, 이번 결정은 매우 편파적이고 불공정하며 비과학적 결정이라고 말할 수 밖에 없다.

첫째, 선정 절차가 흘속으로 진행됐다. 지난 5월 11일에 개최된 입지평가위원회의 정성평가 결과는 밀봉 후 금고 속에 보관하다가 5월 16일에 개봉되어 정량평가 결과와 합산, 최종 대상 부지를 선정토록 되어 있었는데, 이미 사전에 대덕으로 확정되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고 결과 발표도 그대로였다. 발표시점도 6월에서 5월 18일로, 그리고 갑자기 5월 16일로 앞당겨졌다. 보다 훨씬 중요하고 결정적인 하자는 특별법 제9조에 명시된 입지요건 중 ‘연구 및 산업기반의 집적도 및 조성 가능성’ 항목은 연구기반과 산업기반으로 나누어 평가가 기준 없이 단지 적격·부적격 판단으로 대신했다는 것이다. 광주는 지난 78년 아래 진도 4.0 이상의 지진

이 발생한 적이 없어 타지역에 비해 절대적으로 강점이 있는 항목이었다.

둘째, ‘부지확보 용이성’의 측면에서도 하자가 발견된다. 평동군 훈련장 이전 부지 660만m²(200만평)은 국유지로써, 대상지를 중 가장 저렴하고 개발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현재 국방부와 양해각서를 체결하였고 양여사업 승인 공문까지 받아서, 그 중 100만평은 무상 제공 용이까지 밝혔다. 그러나 정부는 이 부지가 아직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단 한 차례의 현장 실사나 겸증 절차도 없이 심사대상에서 제외해버렸다.

셋째, 2009년 수립된 ‘국제과학비즈니스밸트 종합계획’에는 거점지구의 최소 면적이 100만평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를 갑자기 165만m²(50만평)으로 축소했다.

넷째, 5개의 입지요건 중 ‘연구 및 산업기반의 집적도 및 조성 가능성’ 항목은 연구기반과 산업기반으로 나누어 평가가 기준 없이 단지 적격·부적격 판단으로 대신했다는 것이다. 광주는 지난 78년 아래 진도 4.0 이상의 지진

을 본 적이 없다. 연구만이 제일 중요한 연구프로젝트 평가에서도 프로젝트의 우수성이 40%를 넘는 경우도 없었다. 왜곡된 가중치 배점으로 그간 국가가 집중적으로 연구 기반을 조성해 온 대덕연구개발특구지역이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평가가 이루어진 것이다. 필자는 개인적으로는 이 항목이 가장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다. 대덕연구개발특구의 출연연 구소들이 그토록 국제적으로 경쟁력이 있다면 왜 막대한 예산을 더 들여서 다시 연구소들을 만드는 것인가? 필자는 국제과학비즈니스밸트의 조성 취지는 기존의 연구소 체계로는 질 좋은 선진국으로의 진입이 어렵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이유들로 해서 이번 과학밸트의 입지 선정 과정은 매우 비합리적이며 불공정한 것이었다. 미리 답을 정해놓고 거기에 맞춰 문제를 바꾸어가는 이상한 방식이 되었다는 것이다. 상황이 이러한데 그 어느 누가 얹을해 하지 않고 승복할 수 있겠는가?

기초과학의 발전이 하루라도 빨리 이루어지기를 염원하는 과학자로서, 정부가 이번 결정의 오류를 바로잡고 지역균형발전과 과학입국의 100년 대계 차원에서 대결단을 내려주길 간절히 바란다.

〈서울대 물리학부 명예교수〉

를 막기 위해 시원한 물을 주면 된다. 만약 물을 먹지 못하고 소변량도 줄어 탈수가 의심되면 수액치료를 위해 단기간 입원을 해야 한다. 손, 발 등에 잡힌 물집을 터트리면 감염의 우려가 있으므로 삼가야 한다.

수족구병이 유행할 때는 무엇보다 개인위생에 신경을 써야 한다. 물을 끓여먹고 외출 후를 포함해 손을 자주 깨끗이 씻으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을 피하는 것이 좋다. 또한 모두 수유가 장바이러스 감염을 감소시킨다고 알려져 있다. 놀이방이나 유아원에서 환자가 발생하면 집단적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므로 환자에게는 집에서 쉬도록 권유하여 격리시키는 것이 전파를 막는데 매우 중요하다. 장바이러스는 7여종에 달해 현재까지 수족구병의 예방백신은 개발되지 않은 상태다.

결론적으로 수족구병은 열을 동반한 손, 발, 입의 수포성 질환으로 환자를 편하게 해주고, 탈수가 없다면 다른 바이러스 질환과 같이 자연치유되는 질환으로 손 씻기로 포함 개인위생이 매우 중요하다.

〈전남대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

한가지 대안을 제시하고 싶다. 광주시 각 자치구가 직접 나서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모든 장애인 여성에게 정신적, 신체적 멘토 역할을 할 수 있는 ‘후견인’을 만들어 줬으면 한다.

▲이선희·광주시 서구 마륵동

◇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장애인 여성 ‘후견인제’ 시행… 성폭력 예방하자

주변에서 장애인 여성은 상대로 한 성폭행 사건이 터졌다는 소식을 접할 때면 너무나 안타깝다.

우리는 정신·신체적 약자인 장애 여성들이 성폭행당하는 문제에 대해서 지나치게 무관심하거나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무관심 속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장애 여성들이 무방비상태로

성폭행을 당한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에서 장애 여성에 피해를 당하고 있는지도 모를 일이 있다.

결국 장애인 성폭력에 대한 신고율이 낮아 장애인 대상 성범죄가 더 들어나는 요인으로 하다. 그렇다고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피해를 입은 장애 여성들이 전문적으로 치료를 받으며 정신적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은 것도 아니다.

시설

국책사업 ‘후유증’ 수도권 집중이 원인이다

국책사업으로 나라가 절단 날 지경이다. MB정부 들어 각종 국책사업이 국가 백년대계는 커녕 국론 분열과 지역갈등을 심화시키며 대한민국을 사분오열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국책사업의 난맥상은 정부의 원칙과 일관성 없는 정략적 접근이 빚은 결과물이다. 단군 이래 최대의 과학 프로젝트라는 국제과학비즈니스밸트는 ‘정치밸트’로 전락해 짜맞추기식 입지선정이 이뤄졌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이 전문제도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에 따른 영남 민심 달래기 차원에서 결정됐다.

세종시 부처 이전과 동남권 신공항은 대통령의 말 바꾸기로 지역민의 분노를 불러일으켰고 이는 국력 낭비로 이어졌다.

이런 절차적 투명성과 정성으로 일하고 오락가락한 정부의 행태가 우리 사회를 분열과 갈등으로 몰아간 것이다.

대한국책사업의 입지 선정은 지역간 갈등을 유발할 수밖에 없다. 특히 수도권 집중으로 지방이 날로 쇠퇴하는 상

황에 더욱 그렇다. 미래가 보이지 않은 지방의 각 지자체가 엄청난 돈과 사람을 몰리는 국책사업 유치에 사생결단식으로 뛰어드는 것은 당연하다. 현 정부 들어 심화된 수도권과 지방간 양극화가 오늘날 국책 사업 후유증의 근본 원인인 것이다.

정치권도 오늘의 사태에 자유롭지 못하다. 국립민복보다는 오직 자신들의 정치적 위상만을 위해 분열과 갈등을 부추기고 방조했기 때문이다.

작금의 국론분열과 지역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확실한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

대통령부터 나서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할 수 있는 해법을 내놓아야 한다. 국가의 미래를 위해 수도권 위주, 지역차별정책을 당장 폐기하는 얘기다.

정부와 정치권은 국민이 원하는 소통과 통합의 궁극적 목적이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지역균형발전은 국민의 지상명령이다.

광주은행 ‘일괄매각’ 정부 즉시 철회해야

는 최선의 방법인데도 말이다.

산은에 매각되면서 광주은행은 관치금융으로서 지역발전의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다. 또 고용안정과 자율경영권도 보장 받을 수 없는 등 지역경제의 위축은 불 보듯 뻔하다.

광주은행은 민영화가 10년 넘게 지연되면서 찾은 자비구조 변경과 경영진 교체, 정부 측의 입김 등으로 지역은행으로서 제구실을 못 한 게 사실이다. 이런 미당에 산은에 또다시 펌입되면서 지역민이 주인인 광주은행은 은원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정부는 우리금융의 일괄 매각을 즉시 철회해야 한다. 분리 매각을 통해 지역민에게 지역은행을 되돌려주는 게 순리다. 당초 지방은행의 설립 취지가 국토의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이 아니었던가. 광주시와 전남도, 상의 등을 경남은행 분리 매각으로 일괄화하는 게 경제적인 시각이다. 우리금융의 분리 매각이 다양한 일괄 참여자를 확보할 수 있고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는 물론 유효경쟁 불성립을 막을 수 있을지에 대한 염려가 무시된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 병행 매각을 추진한 결과 절차가 복잡하고 추진과정의 불확실성이 커 일괄 매각으로 했다는 입장은 밝히고 있으나 산은금융지주에 몰아주기 위한 의도라는 게 지배적인 시각이다. 우리금융의 분리 매각이 다양한 일괄 참여자를 확보할 수 있고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는 물론 유효경쟁 불성립을 막을 수 있을지에 대한 염려가 무시된 때문이다.

無等鼓

로 인해 국민들의 불신도 사고 있다. 세종대왕은 자신보다 20~30년이나 많은 노(老)대신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얻어 위대한 업적을 쌓았다. 태종 이방원과 달리 즉위 당시 책만 보던 세종이 황희, 맹사성, 박은, 허조 등 당대 대신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은 부지런히 묻고 경청하는 것부터 시작했다.

즉위한 후 세종은 일상으로 ‘내인물’을 잘 모르니 경찰과 의견을 나누어 벼슬을 제수하려 한다는 말을 했다. 세종은 대신들을 수시로 불러 나리에 도움되는 절실한 말을 강직하게 밝혀달라 주문했다.

멘토 리더십



‘멘토 리더십’은 늘 대화를 통해 이해하려 노력하며 그들 앞에 놓인 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 변화를 유도하는 것을 뜻한다.

결론적으로 이 대통령의 귀가 달려 있는 한 민심이반과 지역의 분열은 심화될 것이다. 듣는 귀가 크고, 이를 바탕으로 꾸준히 소통하려 했던 세종대왕의 ‘멘토 리더십’이 절실했던 이유다.

/최재호 경경부지장 lion@kwangju.co.kr

의료 칼럼



조영국

수족구(手足口)병은 이름에서 볼 수 있듯이 손과 발, 그리고 입 안에 물집이 잡히면서 얼이나 질환이다. 이는 장바이러스가 일으키는데 수족구병에 걸린 아이의 호흡기에서 나오는 군이 공기를 떠다니거나 다른 아이가 숨을 쉴 때 입을 통해 전파되거나 환자의 코와 분비물, 침, 그리고 물집의 진물 또는 대변에 직접 접촉하게 되어 전파된다.

장바이러스가 입으로 들어가면 장점막을 통해 혈액을 태우는 몸의 곳곳으로 이동한다. 장바이러스가 피부에 침투하면 수족구병을 일으키는데 대부분 열감기 정도로 쉽게 지

손 씻기 생활화로 수족구병 예방

난다. 대개 초기에 열이 동반되기 때문에 다른 열감기를 일으키는 병과 구별